

## 편집의 변

『동양음악』 제39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동양음악연구소는 2015년 하반기부터 토대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조사한 ‘민속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DB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슬도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예술품이나 명품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구슬로 남기도 합니다.

명품에 해당하는 DB를 만들기 위하여 3명의 연구원들이 상근하고, 대학원과 학부의 학생들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기찬 연구소의 기운은 이전의 정적인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관된 DB를 만들기 위하여, 교내외에서 연구원들과 연구보조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DB 작성에 필요한 기준과 용어,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5월 19일에는 우에무라 유키오(植村幸生) 교수의 <일본의 민족음악학과 세계 음악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특강을 개최하여, 일본의 민족음악학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대학원과 학부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5월 20일에는 (사)한국국악학회와 공동으로 토대연구 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공동연구원들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구원들이 채록하고 정리한 일부 DB를 이용하여 공동연구원들이 연구한 논문들은 그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공동연구원들의 논문은 『한국음악연구』에 수록하고, 일본에 소재한 고이즈미 후이오(小泉文夫)의 자료에 대한 우에무라 유키오 교수의 논문만 『동양음악』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는 이병원 교수를 초청하여, <민족음악학자에 의한 한국음악 현지조사 자료의 현황>이란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민속음악에 대한 현장조사가 매우 드물던 1960년대 초기에 존 레비(John Levy)와 로버트 가피어스(Robert Garfias)가 한국음악을 조사·채집하였던 과정에 대하여 생생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음악』은 연 1회 발간을 하여왔고, 2015년부터 연 2회 발간을 시작하여 이제 지령 40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많은 논문이 투고되었으나, 엄격한 심사과정과 수정을 거쳐 통과된 6편의 학술논문만 신게 되었습니다. 지난 호에 비하여 편수가 적어보이지만, 내용은 여느 호에 못지않아 보입니다. 특히 실기를 담당하는 김정승 교수와 연주 활동을 하는 강효선(강가민) 박사의 연구는 실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이 가는 논문입니다.

좋은 원고를 투고해 주신 강효선(강가민) 박사, 김정승 교수, 신은주 교수, 우에무라 유키오 교수, 이용식 교수, 최선아 박사 6분과 심사를 맡아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원고의 수합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장  
김우진